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행사 개최



2006년도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행사
(2006. 7. 9 송추C.C 한일경제협회)

우리협회 회장단은 7월 9일(일)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을 위해 정기모임을 송추 CC에서 가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등 회장단 7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공사,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栄二) 경제공사, 미야지마 아키오(宮島 昭夫) 공사 등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한경제협회 신·전임회장 교체인사 위해 방한

제7회 한일고교생 교류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월초에 방한한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신임회장[(주)도레이 특별고문]과 전임회장인 세토 유조(瀬戸 雄三) 명예회장[아사히비루(주) 상담역], 타케자와 타이(武澤 泰) 신임 전무이사는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의 안내로 우리협회 고문·명예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의 회장), 이희범(李熙範) 고문(한국무역협회 회장)을, 8월 8일에는 김용구(金容九) 고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재철(金在哲) 전고문(동원그룹 회장)을 예방하고 6월 13일부로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교체되었음을 보고하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보고서 발간

지난 5월 25~27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던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 회원전용자료실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7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개최

한일 양국 경제협회는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서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2004년 1월부터 「한일 고교생교류 캠프(경제체험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캠프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 한국측에서 14개교 49명, 일본측에서 16개교 38명, 합계 30개교 87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에서는 한일 양국의 고교생이 4박5일 동안 합숙하면서 각 9~10명씩 한일 혼성 9개 팀으로 나

누어 한일 양국의 관광·문화를 판매하는 상품을 기획하여 사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캠프 첫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본 캠프 OB 대학생의 이번 참가자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시작으로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서울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양케이트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각 팀별로 비즈니스 기획 아이템을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한일 참가자가 패어를 이루어,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골든 벨」 프로그램을 통해 팀 이외 참가자 간의 교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각 팀별로 비즈니스 기획을 세우고 사업 발표회의 광고물 제작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 CM 리허설 등 열띤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사업 발표회」와 「경제인과의 미니 대화」, 이별 파티, 전통 놀이 한마당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기획 발표에서는 신개념 여행, 전통가옥지붕형 버스, 웰빙 카페, 컴퓨터(게임) 중독자의 사회진출 촉진 사업, 건강음식, 농촌체험, 합작 브랜드, 퓨전카페 등의 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컴퓨터(게임) 중독자의 사회진출을 촉진하여 노동력 확대를 기획한 ‘세노아(세상의 따뜻함;世界の暖かさ)’팀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전통차와 도자기 제작체험을 접목한 신개념 퓨전스타일 카페를 기획한 ‘IIWA(줄음)’팀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제인과의 미니 대화」 시간에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 오비나타 타테오(帯刀 楯夫) 한국요코가와전기(주) 회장, 기병태 한국JMAC(주) 경영고문, 권영욱 한국무역협회 이사가 참가해 주셨으며, 20~30명씩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소 경제분야에 관해 궁금하였던 점에 대해 자유 질의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인들과의 진솔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경제분야에 대한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알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양국의 학생들이 한국문화 체험으로 청계천과 인사동을 견학하고 해산하였습니다.



다음 제8회 캠프는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회원사 기업에서도 많은 참여를 통해 미래지향의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큐슈지역과 24개 협력사업에 합의

~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지난 7월 11일(화)~14일(금) 일본 사가현(佐賀縣)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홍성화 통상협력국장을 단장으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일경제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관련 경제단체, 기업 등 57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큐슈)측에서는 카와구치 오사무(川口修)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큐슈지역 7개현 2개 政令市, 관련 경제단체, 기업 등 19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 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24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한일 간의 IT분야의 교류촉진을 위한 「한·일(큐슈) 디지털 콘텐츠/IT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게임·모바일 콘텐츠, IT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큐슈)지역과의 제휴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차기 회의는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안내

우리나라 서남해(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과 중국 환황해 연안(北京·天津·上海市, 遼寧·河北·山東·江蘇省)지역 및 일본 큐슈(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현, 후쿠오카·키타큐슈시)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4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오는 9월 19일(화)~9월 22일(금)까지 중국 산둥성 일조시(山東省 日照市)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제6회 회의와 병행하여 환황해 산학관연계 대학 총장 포럼(배재대학교), 환황해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환황해 지구 무역·투자협력 상담회(한국수입업협회), 환황해 지구 항구경제포럼·기업 소개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조덕묘 부장 Tel : 02-3014-9855 / E-mail : dmcho@kjc.or.kr)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 반도체산업관련 제조 기술·장치·부품 재료 국제전시회 『SEMICON Japan 2006』 ~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일본시장으로의 진출 지원을 통한 대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의 76차 미션이 오는 12월 6일에 일본 치바로 파견됩니다. 반도체산업관련 제조 기술·장치·부품 재료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SEMICON Japan 2006』 국제전시회와 연계하여 관련 바이어의 사전 어렌지를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금번 전문상담회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 수출촉진단은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74회에 걸쳐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75차 미션 10월 18일 파견 예정),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김정호 차장 Tel : 02-3014-9866 / E-mail : jhkim@kjc.or.kr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비즈니스상담회) 참가기업모집

*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 12월 9일(토) * 장 소 : 일본 치바 마쿠하리멧세

반도체산업관련 제조 기술·장치·부품 재료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SEMICON Japan 2006」국제전시회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동 상담회는 JETRO의 지원으로 관련 바이어의 사전 어렌지를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하는 전문 상담회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반도체제조장치 및 부품 / 재료 / 관련장치 / 설비 등
• 활동내용	사전 어포인트에 의한 바이어와의 1:1 개별 상담회 「SEMICON Japan 2006」전시회 참관 및 개별 상담, 시장조사
• 지원사항	• 국제왕복항공료 지원 • 현지 홍보 및 바이어유치 상담알선 • 상담장 임차 및 필요 기자재 • 통역(일본어)지원 및 홍보용 브로셔 제작·배포
• 참가문의처	• (사)한일경제협회 www.kjc.or.kr 차장 김정호 - TEL : (02)3014-9866 , (02)3014-9888 - E-mail : jhkim@kjc.or.kr

주최 | (사)한일경제협회,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주관 | 산업자원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日本 지역탐방 후쿠이현 도진보(東尋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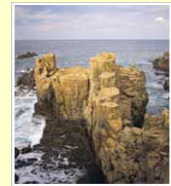
오는 10월 18일(수)~21일(토) 4일간 『제7회 한·일(北陸)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는 후쿠이현은 중부지방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다. 현의 동부는 다테야마(立山) 봉우리에 이어지는 산악지형과 후쿠이(福井)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부는 동부와는 대조적으로 구릉성의 산지와 좁은 평야로 형성되어 있다. 후쿠이현 해안선에는 와카사만(若狭灣)과 에치젠(越前)해안 등 볼 만한 곳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에치젠가가(越前加賀) 국정공원에 속해있는 도진보(東尋坊)는 박진감 있는 절벽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형태의 바위들의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진보는 후쿠이 현의 북부 및 이시카와(石川)현에 인접하는 동해 연안에 위치하며, 거친 파도에 의한 침식을 받아 험하게 깎여나간 바위절벽이다. 절벽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며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도진보에서 볼 수 있는 휘석안산암 주상절리(5각형 또는 6각형 기둥 모양을 한 바위 집합체)의 돌기둥은 대단히 희귀하여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세 곳(한반도의 금강산, 노르웨이 서해안, 일본 도진보)에서만 볼 수 있다.

특히 장엄하고 웅장한 것은 절벽 높이 50미터, 수심 17미터에 달하는 도진보 오이케라고 불리는 해안 뒷쪽인데 이것은 바위 위에서 뿐만 아니라 유람선을 이용한 해상과 높이 54.7미터의 도진보 타워에서도 볼 수 있다. 주변에는 도진보의 북쪽 앞바다에 떠 있는 오시마(약 2Km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섬을 일주하는 산책길이나 신사가 있다)와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기암이 많이 있으며 겨울에는 부서진 파도가 거품상태로 암초 사이에 모였다가 돌풍에 흩어져 날아오르는 「파도의 꽃」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도진보의 지명은 도진보라는 승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도진보라는 한 승려가 있었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었으며, 자신의 괴력을 믿고 백성을 괴롭혀 원성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살던 아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같은 절에서 기거하던 한 사무라이 역시 그 아가씨를 좋아해 둘은 연적이 되었다. 도진보와 사무라이는 갈수록 사이가 악화되었고 도진보가 술에 취한 어느 날, 사무라이가 도진보를 절벽에서 밀어 숨지게 했다. 그날이 4월 5일이었는데 그 후 매년 4월 5일이 되면 도진보의 영혼이 날뛰어 바다가 매우 요동쳤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진보의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經 濟 한일 경제관계 현황

1. 한일 경제관계 개관

□ 무 역

- 2004. 11월 이후 한일FTA 협상 중단 및 양국간 정치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는 계속 확대 (2005년 양국간 교역은 720억불을 상회,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우리의 대일 무역역조는 계속 심화 추세
 - 2004년 대일적자가 244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2005년에도 243억불 규모 적자를 기록
- 대일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즉 우리의 전체 수출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이 증가하는 우리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 노력이 시급 (아울러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對韓 투자유치 노력 긴요)
- ※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액정패널의 국산율은 40%에 불과(나머지 60%는 대부분 일본 부품)하며, CDMA 방식 휴대전화도 국산화율이 69%에 불과

< 한·일 교역현황 > (단위 : 억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교역액	290.8	400.0	523.0	431.4	450.0	535.9	678.4	724.7
수 출	122.4	158.6	204.7	165.1	151.4	172.8	217.0	240.8
수 입	168.4	241.4	318.3	266.3	298.6	363.1	461.4	483.9
무역수지	-46.0	-82.8	-113.6	-101.1	-147.1	-190.4	-244.4	-243.1

□ 투 자

- 일본의 대한투자는 부품소재 분야의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이 높은 바,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2004년 22.5억불을 기록한 일본의 對韓 투자는 2005년의 경우 18.8억불로 다소 규모가 축소
 - 단, 반도체 LCD 부품제조 등 첨단분야 투자는 계속

< 양국간 투자현황 > (단위 : 억불, 총신고기준)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한투자 (비중)	2.7 (3.8)	5.0 (5.7)	17.5 (11.3)	24.5 (16.1)	7.7 (6.8)	14.0 (15.4)	5.4 (8.4)	22.5 (17.6)	18.8 (16.2)
건 수	134	330	391	614	591	474	495	552	611
대일투자 (비중)	1.01 (2.0)	0.24 (0.5)	0.98 (2.0)	1.19 (2.0)	0.87 (2.6)	0.74 (1.57)	0.49 (1.4)	3.3 (4.1)	2.0 (2.5)
건 수	25	20	37	135	117	82	62	114	124

□ 인적교류

- 양국간 인적교류도 계속 증가 중인 바, 일측의 비자면제 조치(06.2월)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 (2005년중 한국인의 일본방문이 190만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
- 단, 최근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큰 변동이 없는 바, 05년은 242만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 감소

<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 > (단위 : 만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방 한 일본인수	167.6 (43)	195.4 (46)	218.4 (47)	247.2 (46.5)	237.7 (46.2)	232.2 (43.4)	179.1 (37.9)	242.6 (42.0)	242.1 (40.5)
방 일 한국인수	112.7 (25)	82.2 (27)	105 (24)	110.1 (20.0)	117.0 (19.2)	126.6 (17.8)	159.8 (20.1))	173.9 (17.8)	190.0 (17.3)
총 수	280.3	277.6	323.4	357.3	354.7	358.8	328.9	416.5	432.1

※ () 총 입국자중 일본인 비중과 총 출국내국인중 방일자 비중

2. 한일 경제·통상관계 현황 및 전망

□ 한일간 경제·통상관계 평가

- 최근 한일관계 경색과 더불어, 한일FTA 협상도 2004. 11월 6차 협상 이래 중단상태 계속
 - 일측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협상중단의 원인
- FTA 협상중단 초기에는 일측이 협상재개에 의욕을 보이면서, 우리측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제고 요구에 어느 정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일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세성·청, 정치권 공히 FTA 협상재개에 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일측으로서도 ASEAN, 인도, 호주, 칠레 등 여타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양상
- 또한 근년에 들어 한일 경제관계 긴밀화 및 정보통신·전자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경쟁격화에 따라 지적재산권, 농수산물교역 등에 있어 통상 분쟁도 빈발할 가능성 상존
 - 우리의 일본 김IQ WTO 제소, 일측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건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개별현안들이 경색국면의 양국관계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
- ※ 일본 김IQ 문제
 - 한일 양측은 06. 1. 20, ① 일본은 대한민국 김IQ를 향후 10년간 12억매까지 점차 확대(05년 2억4천만매)하고, ② 한국은 WTO 패널 제소를 취하한다는 것에 합의
- ※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부과 문제
 - 일본정부는 06. 1. 21, 27.2%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1. 27부터 상계관세 부과 개시
 - 우리정부는 WTO 제소 등 관련 대응방안 검토 중

□ 대일 경제·통상 정책 방향

- 우리 경제발전에 불가피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과정에 있어 우리의 실리확보를 위해 日中間 경쟁관계를 적절히 활용
 - 일본이 우리 경제에 있어 주요 부품소재 공급국이자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계속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긴요
 - 동아시아경제에 있어 점고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의 하나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간자적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실리 확보
- 한일FTA 교섭은 "시한보다 실리"를 중시하여 추진
 - 농수산물분야 개방수준 확대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일본 스스로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 않는다는 기존입장 계속 견지
 - 한편, 한일FTA 교섭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06. 2. 3, 韓美FTA 교섭선언)
- 단, FTA 협상중단상태의 장기화가 통상적인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급 레벨에서의 협력채널은 계속 유지
 - 양국 정부의 경제부처간 교류, 경제인 교류, WTO·OECD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은 적극 추진
- 향후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IPR) 등과 관련한 양국간 통상 분쟁에 대해서는 여타 비정치적 분야의 한일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급적 실무적으로 처리되도록 관리
 - 또한 이러한 통상 분쟁 발생시 사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한일 경제부처·단체, 기업인간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에 노력
- ※ 최근 주요 한일 경제교류 주요 예
 - 제1차 한일 연례재무장관회의 개최(06. 2. 4)
 - 2006. 1월중 건교부 장관 및 정통부 장관 일본방문 등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日本은 지금...

國內 問題로서의 야스쿠니

田勢 康弘

<정말로 參拜는 自由인 것인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하(히로히토(裕仁, 1901-1989) 日王을 칭함)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상 참배에의 영향은 없다. 폐하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든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자유이기 때문이다’라고 고이즈미 수상은 잘라 말한다. A급 戰犯이 야스쿠니(靖国) 神社에 함께 모셔져 있는 것 때문에 쇼와(昭和) 천왕이 불쾌감을 갖게 되어, 그것이 참배하고 싶지 않게 된 이유라고 하는 富田朝彦 前 宮内廳 장관의 메모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의 발언이다.

상당히 오래 전에 <까마귀는 왜 우는가? 까마귀의 자유지요>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좀 가볍게 말하는 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회상하게 된다. 수상이든, 관방장관이든, 천왕 폐하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自由>라고 한다.

헌법20조 3항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戰後 수많은 재판이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A급 戰犯이 함께 들어 있는 야스쿠니 神社에 內閣 總理大臣으로서 參拜하는 이유를 국민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식 자리에서 首相에 질문 한 적이 있다. 수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A급 戰犯인지 일반의 英靈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왜 죽은 자(死者)를 구별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음(心)의 문제이다.’

이 대답은 一見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인가?’ 이 발언

을 들었을 때에 무심코 그만 귀를 의심했다. 야스쿠니 神社는 죽은 자를 구별하고 있다. 야스쿠니 神社는 明治 2년(1869년), <東京 招魂社>로서 明治 天王的 命으로 지어졌다. 明治 元年의 <戊辰戰爭>으로 죽은 <政府軍>의 병사를 신으로 받들어 모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패한 병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칭이 야스쿠니 神社로 바뀐 것은 明治 10년의 西南戰爭의 2년 후이다. 자결한 西郷隆盛은 <國賊>이 된다. 정부군 병사 6,971명을 모셔 제사를 지내기 위해 <東京 招魂社>가 되어 그 때부터 神官이 놓여져 神社의 형태를 정식으로 갖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육군 간부가 제사를 도맡아 관리했다. 물론 정부군을 상회하는 <國賊> 西郷軍의 죽은 자(死者)는 모시지 않았다.

戰前의 야스쿠니 神社는 陸海軍이 공동 경영하는 <軍事 施設>이었다. 戰後, 인간의 종교법인이 되었지만, 전쟁 박물관과 같은 시설 <遊就館>의 전시 내용에는 그 흔적이 느껴진다. 고이즈미 수상은 A급 戰犯에 대해 ‘戰爭 犯罪人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戰爭 犯罪人>이 함께 있는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은 <누구나 自由>, <마음의 問題>라고 한다. 수상의 참배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極東 裁判 그 자체가 불법이고 비록 A급 戰犯 이기는 하지만 戰爭 犯罪人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수상은 그 사람들과도 다른 것이다.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맹세하기 위해 英靈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수상은 말한다. 거기에는 헌법 20조에 대해서도, A급 戰犯에 대해서도 설명이 빠져 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

때문에 ‘戰歿者(전몰자)에 참배하는 것이 종교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지만,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불명한 답변(2001년 5월, 중의원 예산위)이 되는 것이다.

차기 총재로 유력한 安倍 晋三(아베 신조) 官房長官이 4월에 참배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의 최후의 기회인 8월 15일 終戰紀念日에 참배할지 여부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왜 남몰래 참배하는 것인가? 왜 <갔는가 안 갔는가 말سم드릴 생각 없다>라고 설명을 거부하는 것인가? 비틀어서 추측하면, 安倍 晋三 官房長官은 총재 선거 前에 참배하고 수상 취임 후에는 당분간 참배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 등의 비판을 피하려고 생각한 것인가?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큰 정치 문제

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국내 정치 문제인 것이다. 야스쿠니 神社 창설로부터 137년. 이전에 다른 어떤 神社와도 다르다. 천왕과 전쟁에 관련한 중요한 神社로서 존재해 왔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이 되어 60년이 흘렀다. 더욱 중요한 <당사자>로서의 히로히토 天照이 ‘나는 그 이후 참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한 메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自由’, ‘말سم드릴 생각이 없다’의 論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헌법 위반의 의심을 품고 최대의 국난에 직면한 듯한 外交 問題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問題>라고 단정하는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 내셔널리즘이 태두하고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하여 화를 자초하는(입은 재앙의 근원)의 사회 풍조. 他國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日本의 問題>로서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6. 8>

♣ 인맥관리 18계명 ♣

- ①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마라.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②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③ 네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기본적으로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것이다.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④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네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처음에 도와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 ⑥ 남의 험담을 절대하지 마라.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⑦ 회사 바깥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라.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그리고 회사가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된다. ⑧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⑨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잘린다. ⑩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보라. ⑪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할인점 가서 열 벌 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라. ⑫ 조의금은 많이 내라. 부모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2, 3만 원 아끼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⑬ 수입의 1퍼센트 이상은 선한 일 위해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⑭ 수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에게 잘해라. 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근원일뿐더러, 네 부모의 다른 모습이다. ⑮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울겠느냐? ⑯ 너 자신을 발견해라. 다른 사람들 생각하느라 너를 잃어버리지 마라.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홀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⑰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네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⑱ 아내(남편)를 사랑해라. 너를 참고 견디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나?

日本の 명절 일본의 추석-오봉야스미(お盆休み)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일본의 오봉(お盆)은 원래 음력 7월 13일~15일을 중심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행사였으나, 일본에서 음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현재는 양력 8월 15일로 정착되었다. 정식명칭은 盂蘭盆會(うらぼんえ-우라보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여름과 겨울에 1년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영향 때문인지, 1월과 7월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었고, 이것이 설과 오봉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두 시기에 민속행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설이 신(神)적인 색채가 강한데 비해 오봉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 오봉의 어원

부처의 제자 중 목련존자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구하는 옛이야기에서 유래한다. 목련존자는 어느 날 수양을 통해 얻은神通한 힘에 의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부처에게 상의하자, 부처는 "여름 수행이 끝난 7월 15일, 스님을 모셔 많은 제물을 들여 공양드리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느니라."하였다. 목련존자가 부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극락왕생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때 이래 음력 7월 15일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드리며, 공양드리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 근래에는 양력 8월 15일로 정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606년에 처음으로 오봉 행사가 치뤄졌다고 전해진다. 일본 각처에서 열리는 오봉 행사는 지방마다 풍습도 첨가되거나 종파마다 차이도 있고 해서 형태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조상의 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척일가가 모여 조상을 맞이하며, 공양을 드리고, 멀리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귀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경은 한국과 많이 닮아있다.

▶ 오봉의 주요 행사

- * 무카에비(迎え火) - 일반적으로는 13일,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이기 위해 묘지나 물가 등에 불을 놓는다. 오래된 습관으로는 이 무카에비를 양초에 옮겨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 불단을 밝히기도 하는데 요즘은 불꽃모양의 전구를 사용하는 곳도 많다.
- * 무카에우마(迎え馬) - 조상의 영혼이 올 때 타는 것으로 짚이나 가지, 오이 등으로 말 또는 소를 만들어 바친다.
- * 본다나(ぼんだな) - 오봉 기간에는 불단에 특별히 선반을 마련하고 특별한 공물을 바치는데, 주로 다식 또는 설탕과자, 과일, 국수, 가지, 파리, 경단 등을 준비한다.
- * 성묘 - 오봉에는 가족 모두가 선조의 묘에 성묘를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마을에서 묘를 향해 여럿이 몰려 나가 마시고 노래하며 소란을 떠는 곳도 있으며, 오봉의 일주일 전쯤에는 묘를 방문하고 청소를 하는 곳이 많다.
- * 봉오도리(盆踊り) - 마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가운데에 망루를 설치하여 그 위에서 북을 치고, 망루 주변에서는 원을 그리며 모두 춤을 추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비슷한 춤이라고 할 수 있다.
- * 오키리비(送り火) - 오봉이 끝날 때쯤에는 불을 피워서 조상의 영혼을 전송하는 의식. 교토(京都)의 다이몬지야키(大文字焼き - 大자 모양으로 큰 불을 놓음) 등은 큰 규모로 행해진 오키리비라고 할 수 있다. 등을 물에 띄워 보내는 도로 나가시(籠流し)도 이의 변형이며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쇼로나가시(精霊流し)에서는 오봉의 공물을 싸서 흘러보낼 곳까지 가지고 가기도 한다.

會員 動靜

■ 8월 16일 서울 한남동 용산국제학교 개교식에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의 회장), 이희범(李熙範) 고문(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국내 첫 민관공동 투자방식으로 착공 1년 만에 설립된 용산국제학교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결정 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건립됐다.

■ 김용구(金容九) 고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8월 24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강연회에 초청받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인천경영포럼은 지역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경제 5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 회장)은 8월 8일 오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4층 특설 전시실에서 개교60주년 도서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8월 14일 오전 그룹 사옥에서 내방한 로버트 블록커 미국 예일대 음악대학 음악대학장과 환담을 갖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예일대 음대 간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교류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 지성하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이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6 전국무역학자대회에서 '2006 무역인 대상'을 수상했다. 무역인 대상은 외국간의 무역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1990년 당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 1회 수상한 이래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3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5회), 최신원 SKC 회장(16회) 등 국내 주요기업 CEO들이 수상해왔다.

■ 7월 19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최로



실시한 차세대 경영자 육성 방일단 결단식에 이종훈 덕성여대 이사장(전 중앙대 총장)을 초청하여 「일본과 전쟁과 일본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문의 : 조덕묘 부장>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him@kjc.or.kr
홍소영 직원	02-3014-9888 syhong@kjc.or.kr

☞ 2006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17(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한국 서울
2	8(월)~10(수)	제8회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 유치	한국 서울
	9(화)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9(화)~13(월)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17(금)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의 업무협약 개최	한국 서울
	17(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20(월)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22(수)	한일재계인사 간담회 개최	일본 도쿄
	22(수)	한일재계인사 간담회 개최	일본 도쿄
4	10(월)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7(월)~29(토)	경영관리연수 파견(20명)	일본 도쿄
5	25(목)~27(토)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일본 삿포로
	5월~9월	생산성단기건설팅(고문매칭) 실시(10사)	한국
6	21(수)~23(금)	한일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 파견(20사)	일본 도쿄
	25(일)~7/8(토)	품질관리연수 파견(30명)	일본 오이시
7	11(화)~14(금)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사가현
	15(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23(일)~29(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15명)	일본 도쿄
	24(월)~11/11(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30명, 111일간)	일본
8	4(금)~8(화)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유치	한국 서울
9	5(화)~8(금)	2006 NEAR IN 도야마 전시회 파견(10사)	일본 도야마
	25(월)~29(금)	전자기술상담회 파견	일본 동경, 후쿠오카
	19(화)~22(금)	제6회 한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중국日照市
10	18(수)~21(토)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후쿠이현
	18(수)~21(토)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도쿄
	24(화)~28(토)	아시아산업기술페어 전시회 파견(20사)	일본 기타큐슈
	31(화)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 유치(15사)	한국 서울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11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1(수)	한일산업협력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6(월)~7(화)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 서울
	10(금)	지식산업기술연수 수료식 & 보고회 개최	일본
	17(금)	생산성향상단기건설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 서울
	27(월)~12/1(금)	산업기술교류미션 파견(30명)	일본 도쿄 등
12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6(수)~9(토)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치바
	10(일)~23(토)	이공계산업기술캠프 파견(12명)	일본 나고야 등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